대학원생 세미나 13. 09. 13

리딩: Whilliam A. Callahan and Elena Barabantseva ed. 2011. China Orders the World: Normative Soft Power and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토론>

옥창준: 자오팅양은 자기 역사에서 언어화를 해서 잘 표현한 듯.

최은실: 친야칭과 비교했을 때 옌쉐퉁을 보면 서구이론에 친화적인 듯. China School에서 주류 국제정치이론을 더 차용해서 자기이론을 더 전개함. 현실주의자라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 옌쉐통은 친야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구성주의자의 인식론이 위험하다고 이야기 함. 사회, 이익이 구성될 수도 있지만 사회는 객관적인 이해가 있고 중국도 객관적인 이해가 있다고 함. 중국 부상과 패권적 야망에 대한 질문에선 다름. 패권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아니라고 함. 중국의 지향이 공세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생존추구와 지위상승을 꿈꾸고 있는 것은 맞음. 여전히 중국과 대적할만하지 않다고 주장.

송지예: 확실히 말씀 하신 것, 자오팅양은 철학자라서. 글쓰기나 전략에서도 다른 듯. Theory-Talk는 옌쉐퉁도 자오팅양과 다른 류라고 가름. 미국식 training 안에서 그 언어를 써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을 듯. UN과 비교하는 논문에서 UN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국식 사고의 방안 제시. 사실 단편적인 비교인데, 그런 점에서 선을 긋고자 하는 듯. 우리도 중국이랑 같이 이야기한다고 중국학파가 될 수 있나? 중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천하질서, 천하체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최인호: 아직은 Theory라기엔 혼란. 아직은 규범적인 것이 큼. 친야칭도 이론의 핵심엔 core-interest. 이후엔 periphery -integrated society라고 함. 그 기저에 있어선 우리보다 강하게 내셔널리즘적인 것이 크고, 껍데기로 천하체계를 얹은 것이 크지 않은가. 너무 천하체계 미화한 것도 있음.

옥창준: 그러나 국민국가를 미화한 것도 아님.

최인호: 너무 좋은 것만 가져다붙인 듯. 중국 철학에서도 nativist가 있음. 중국문화, 전통을 강조하는 분위기. 그런 것들에게 휩쓸려있는 것이 아닌가

최은실: 옌쉐통의 이야기는 세 전통 중에 하나로 자오팅양. 중국인들 스스로도 의아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학파에 들어가서 한 마디 보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음. 중국전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옌쉐통처럼 순자, 공자 등을 서구이론에서 볼 것인가, 가운데에서 차용할 것인가의 고민. 그런 스펙트럼의 하나로도 중요할 듯.

옥창준: 자오팅양은 언어능력도 있어서 유통이 되는 듯. 서구에서는 흥미로움. 김지하랑도 비슷. 한국적인 것 찾아서 하는데 이상하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최인호: 그런 천하이야기는 영향은 있는 듯. 장펑의 논문에서 rise of China를 검토. 중국의 예외주의가 부상했다고 하면서 그 세가지는 천하주의, 중화주의, 평화사상이 겉은 바뀌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결국 Peace development의 기조에는 그런 전통적인 사고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클 때마다 예외주의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듯.

옥창준: 중국인들의 인식에 내재된 것도 있는지, 중요결정을 할 때 나오는 것인지. 중국 마음에 있는 것.

최인호: 하나의 외교정책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전체 중국의 상에서,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에서, 판을 짜는데 중요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나의 외교정책적으로 잡아내기 힘듬.

용채영: 중국의 예외주의. 지도자의 조화세계 언급에서 출발한 것도 있지만 관념에서 나온 것보다 연구로서 이론적으로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론/정책의 모순이 있고, 조화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역사적, 이론적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실질적, 이면엔 외교정책적 사고와는 다를 수도 있을 듯. 그리고 서구이론을 비판의 지점이 있지만 너무 서구 단순하게 처리. 웨스트팔리아와 딱 반대인가? 주로 공격근대 이후로 잡고..웨스트팔리아 이전도 안보고...

옥창준: 서양철학을 까는데 재미있는 것은 있지만. 너무 서양비판과 천하에 확 엮어서 설명하려는 것, 거친 것은 있음.

최은실: 분석틀로서의 개발보다 사유체계라서 어쩔 수 없을 듯. 항상 중국고전을 가져와서 설명함. 우리도 비판하거나 꺾거나 전환할 수 있나? 제대로 비판도 안되고? DNA에 녹아있다는데 어떻게 거부가 안 됨. 그런 담론들을 전략적으로 거부할 수는 있나?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면 쉽지 않음.

옥창준: 서양이랑 중국 비슷한 것도 있음. 자신들의 고전 인용해서 현대적 함의 찾으려 하고, 문자적으로도 접근 용이하고.

이보미: 국가 이상의 통치철학이 있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시간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나? 사유를 하는 것도 이상적이므로. 태평성대라는 시기는 정말 있었나? 존재했나? 분명히 수틀리는 때는 군대를 이끌고 내려옴. 천하질서, 이들이 생각한 지역차원, 세계차원의 구상들을 알 필요는 있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원칙도 알 필요도 있지만 더 알고 싶은 것은 분명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치들이 있을 텐데, 분명 군대를 갖고 왔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전략인가?

송지예: 반드시 중화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 계속 친야칭도 이야기하는 지문화. 중국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나왔지만 문화적으로 보편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국의 희망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함. 중화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최은실: 사실이 아닌가? 중국이 중심이 아니었으면 연구되기 어려움.

최인호: 자신들, 이미 다 그들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mind자체가 민족주의적인 것일 수도 있음. 전통적인 사상에서 나오는 것보다 민족주의적 관찰이고. 우리는 저항민족주의에서 국학운동을 세웠던 것처럼. 약간 회의주의가 있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사고관에 정책을 어떻게 맞추는지 관찰하는 게 중요할 듯. 껍데기는 천하질서의 포장이고 다른 사고, 언어가 없었으므로. Normative power + normative hard power에 가깝게 운영한 것. 과거만 해서는 되기 힘들고.

최은실: 천하체계를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들이 그걸 믿어서 이야기할까? 천하가 일방향적으로 흘러갔다는 것 자신들도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최인호: 역사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학자, 국제정치학자들은 그렇게 일부러라도 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음. 국주주의자, 리버럴리스트, 지역주의자 등 파벌벌로 다르다. 극단적 민족주의자 구분.

최인호: 결국엔 그것을 깔고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위 하는지 파악하는게 연구주제 아닌가?

용채영: 중국학자들의 인식론적 낙관주의 조심해야 할 듯. 서구와 다른 발전경로나 대안 이야기를 스스로 성장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진리를 찾아서 중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 또 Harmonious world/Harmony with difference도 차이가 있음. 처음엔 조화세계 하다가 이후 중국은 ‘구동존이’ 이야기도 함. 옌쉐퉁도 그런 것 같음.

최인호: 티벳한테는 권력관계를 설정하고 서구제국주의보다 낮게 티벳들을 편입시켜서 현실주의적으로 함. 권력관계로 보고 참여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봄. 말은 거의 비슷. 자오팅양, 다르게 해석함. 중국이 moral을 대표해도 권력정치적. 우리가 봤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송지예: 사실 타자 없는 세계가 아니라 타자 있는 세계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순자 인용 등. 그것에 대한, 특정 역사시기나 사건이 있어야 비판할 수 있을 듯.

최은실: 누구를 비판해야 하는지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질 듯. 자오팅양, 친야칭, 다른 중국학자들의 천하세계도 다름. Practice가 달랐다, 그래서 concept도 달라지고. 과거로부터 달라지고, 차용하고 있지만. 미화, 은유로 가득 찬 세계가 아니므로. Theory-talk도 법칙/관계, 커피를 마시는 것/차를 마시는 것. 문화, 관행에 비교하는 것.

최인호: 이게 근대적인 것과도 섞인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한 듯. 레토릭을 다른 방식으로 구사하는 것도 문제 있음. 친야칭도 relational governance를 강조하는데 새로움. 우린 우선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서 프로세스를 하는 것과 IR이 겹치는 듯. 6월 정상회담에서도 오마바-시진핑 전례 없이 특별했다는 관계, Personal relationship을 강조함. 실제 정책, 상호작용에 대해서 나타나는지를 봐야함.

송지예: 어떻게 한국 쪽에서 연구하나?

최인호: 그래도 우리는 nationalism적인 것에선 자유롭지 않나. 그리도 우리도 강했고 사대시기에서 청나라, 명나라의 사대질서에서 같은 것을 봐도 이념을 현실주의로 활용하는 것으로 봄. 중국은 합의에서 조화했던 것으로 보지만 사실 권력정치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듯.

최은실: 사례가 있고, 잘 보여주면 되는데?

송지예: 대동아공영권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같은 이야기하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민족주의가 있고. 중국의 역사와는 다름. 그쪽도 비판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최인호: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듯. 역사적 작업.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대처했고, 설명했는가.

이보미: minimum하게 우리도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minimum에서 충돌지점이 있지 않나.

최은실: 긍정적인 평가? 중국이 떳으므로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에 찬성, 비판 가능. 우리가 덧붙일 platform이 되는 듯. 그런 relationality를 강조하는 것도, 국제정치적 concept으로 차용하면 더 할 이야기가 늘어나지 않을까? 관계적인 사회 속에 더 있고. 그게 또 비판만 할 것인가? 우리도 할 여지가 생기지 않나?

최인호: 역사 다 무시 못한다. 옌쉐통은 다 무시함. 뒤의 중국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서구학자들도 비판하고. 결국 수정될 듯. 그럼에도 영국에 있는 중국학자나 옌쉐통도 싫어하지 않음. 어쨌든 띄었고, 서구 실증과학적으로 하려는 시도로서 좋은 것이다. 옌쉐통이나 중국정책결정자들과의 연결관계도 있고. 중국의 향후 외교정책을 IR로 보겠다. 사회과학적 이론보다 전략을 보여주는 sample로 봐야 할 듯. 예측이나 설명하는 사회과학 이론보다는. 우리도 그런 입장이 있는 듯. 전략도 이야기하고, normative vision도 이야기하고.

이재현: Cunningham. 서구주류 IR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보면 자오팅양 등의 학자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중국이나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다고 봄. 논문 결론이 이 시도가 신선한 이유는 origin, 인종적 origin을 벗어나서 넓혀질 수 있다라고 함. 하지만 중국이 지역패권에서 권력정치로 쓰는 이론이라면 안 됨. 서양 IR에서 중국부상=중국이론 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동아시아 대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

최인호: 아무리 중국 파워로 같이 뜨긴 하지만, 여하튼 동아시아의 경험이 담긴 것이므로. 탈식민주의나 이론의 critical theory적으로 생각한다면 동아시아 경험을 서구경험보다는 친밀하게, 말로써 하려고 하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구 이론보다는 낫지 않나. 새롭게 다른 시각, 국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봄.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할 부분도 있지 않나.

송지예: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음. 읽으면서 영국학파도 국제사회학파라고도 함. 그런 지층의 문제임. 어떤 국제사회를 상정하는지, 목적론적으로 미국 대항의 의미로 출발. 그런 권력적인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음. 영국학파에 대한 비판은 서구이론으로 확대하면서 수용자들의 입장, 권력관계를 무시한 담론. 그들은 확산의 의미로 보았는데. 이도 중국학파에게서 되풀이 될 수도 있다. 고대 중화세계에 대한 갈망도 있고, 현재의 부상시점에서 과거 되돌이키기 위한 것에서 보면 이론의 내포성.

옥창준: 부상국가의 국제정치학이라면. 영국은 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중국도 재해석하는 과정. 자연스럽긴 한데. 미국 국제정치학이 역사성이 없는 것도 결국 긴 국면에서 보면 예외일 수도.

용채영: 최근의 연구흐름은?

최인호: 조공체계도 있고, 명청시대도 있고. 19세기 분석한 것도 있고. 조공체계가 가장 뚜렷했으므로 가장 많고. 중국의 China IR 자체에 대한 관심. 역사사회학적으로 유럽의 국가형성과 전국시대의 국가형성 비교하는 것도 있고.

최은실: 결국 중국 IR이 strategy에서 무슨 차이냐.

최인호: 국제사회학이나 거시적인 쪽에서는 중국의 생각을 읽지만 거시적으로 봄. 중국의 next order를 알고싶다고 하고, 미국은 더 좁혀서 정책이나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봄.

최은실: 최근 중국 민족주의 연구 엄청남. 과거에 비해, 2007년-2008년. 이제는 nationalism으로 분석.

최인호: 중국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함.

용채영: 연구주제로 normative하게 맞다, 안맞다를 평가하는 것은 그걸로 그치고.. 내재적 비판도 어려울 듯. 역사적, 규범적으로 문제시있다고 해도 결국 끝. 연구주제로 분석적으로 한다면? 최근의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중국이 그런 내셔널리즘이 나오게 된 단계를 분석한다면?

최인호: 왜 rhetoric을 던졌을 때, 뒤의 행동과의 부합여부를 맞추는 것. 무슨 내용인가? 중국의 justice war 등. 평화적 레토릭의 역사적 기원이 무엇이고 함의가 무엇이고. 추후행동이 어떻게 될까 맞추는 게 더 중요할 듯. 회유전략 등.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도 단계적으로 함. 회유를 해서 동심원적으로 IR에서 hierarchy를 만든다. 이는 해석만임. 실제 사회에서 맞춰서 좁혀서 설명한다던가...

송지예: 영국학파에서 스즈키 쇼고의 글을 봤었음. 지침이 될 수 있음. 일본이 경험한 영국학파연구의 예. 서양세계에서 일본이 만났던 것, 일본의 제국주의화는 서양세계로의 만남과의 경험때문이었고, 서양의 모방 때문이었다. 서양의 국제사회론 안에, 국제사회의 확산 안에서 악마적인 측면이 일본에게 보였다. 경험자로서 국제사회의 이상적인 측면을 비판하면서도. 이도 중국연구에 있어서도 조선, 고려 등 한반도의 왕조가 느낀 천하체계에 대해 비슷한 연구가 될 수 있지 않나. 일본도 아시아 속의 서양이라는 일본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구가 아닌 동양에서의 서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일본 위치. 조선도 일본에 비해 천하체계에서 가까웠었음.

최인호: 예컨대 19세기를 예를 들어 근대유럽이 똑같이 왔지만 중국, 일본, 한국의 typology를 나눌 수 있지 않나. 쇼고 스즈키도 영국학파...미국학파랑 다름. 우리는 이해되지만.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에 대한 미국 비판...우리가 주장, 연구할 때 Audience가 중요한 듯.

최은실: 미국에서는 사장된다. 방법론적인 문제. 어떤 research design으로 가는 지에는 한계. 어떤 개념이나 한계. 인식론적인 접근이나 관념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불가함.

최인호: 그래도 역사학파, 철학과도 연결. methodology연결. 미국식의 논리로 보면 부족할 수 밖에 없음. 아주 무시할 수 는 없음. 개념, 실제 있다고 보여준다고 하는지?

도종윤: 토론이 지식사회학적인 이야기로 많이 넘어감. 처음의 이야기, 중국학파가 될 수 있는지부터 또 우리가 미국학파인 것도 아니고 한국의 문제를 미국식으로 푼다임. 어떤 지식사회의 집단에 들어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파에 우리가 속한 것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푸는데 뭐가 더 적실한지를 정하고 판단해야 함. 우리가 가진 문화, 동아시아의 현실이랑 비췄을 때. 미국식으로 푸는데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실마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어야 될 것 같고 지식사회학은 이후의 이야기. 유럽에서도 구성주의, 사회학에서 출발. 현재 유럽은 구성주의자들의 세계인데, 웬트식의 구성주의와도 다름. 유럽의 현실과도 맞춘 구성주의로 변화.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형성되었지만 이를 학파라고까지 이야기하진 않음. 대륙연구자들이 공유를 하고 있긴 함. 구성주의라고 이야기는 안 해 대륙학자들은 그렇게 감. 그러나 미국 구성주의와도 연결. 다시 hint를 받아서 자신들의 이야기로 푸는 듯. 지식사회의 society가 있다면 문제를 짚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친야칭, 지문화라는 맥락 강조. 국내문제 강조하는 것 은유적임. 천하개념과 연결하면 거의 국내문제로 환원하려. 역사적으로도, 문화, 영토적으로도 국내문제로 강조. 사대질서, 천하질서도 국내문제. 그 안에서 천하라고 함. 그 안에 국내문제가 결국 그 말에는 숨겨진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음. 친야칭, 자오팅양의 말 속에 권력의 말은 등장 안 함. 국제정치학에서는 권력개념이 드러나야 하는데, 거의 언급 안 됨. 단지 자신들이 흘러가는 방향성에서만 논의. 권력문제는 어디서 추출해내냐? 지문화적 맥락에서? 중국의 정체성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변했다는 것인가? 찾아낼 필요가 있을 듯. 자신들이 변했다는 것은 주체가 가졌다는 것인데 권력도 capability에 기반. 그 안에서 권력자원도 있음. 정체성의 변화의 말이 뭐냐. 이 안에서 숨긴 권력개념이 은폐된 것을 보여줘야 함. 숨긴 것인지. 엮이는 방법. 중국의 논리와 보조를 맞춰서 중국학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 등을 보면서 논리구조를 탐험해보면서 그들의 전략을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관계 맺음으로 인해 society로 엮일 수도 있지 않나. 같은 이야기로 society가 아니라. 자오팅양, 자오-타자가 없다. 이는 타자화 전략이 없다는 것임, 다 자기 것이라는 이야기. 좋게 말하면 왕도정치고. 인식론적인 위험성이 있음. 우리는 오히려 타자다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 문제. 식민주의 등을 이야기할 때 식민지배, 서구는 타자화 전략을 취했는데 이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동아시아에서의 주변국들과 맺을 때 관계 맺음은 타자화 전략을 안하겠다는 것. 하나로 묶는다. 타자가 아니다는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들을 남김.

여러 암시들을 던져줌.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찾아 봐야하는지. 이들의 시각으로 이를 설명한다, 미국식으로 한다 보단. 이들의 인식론, 존재론적인 것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권력정치적 속성을 드러내준다든지. 엮여준다는 것. 비판, 도전보다도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을 지적해주면서 발전적으로 한다면 이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들도 답변을 해줄 것임.